

2025년부터 바뀌는 노동법, 어떤 내용일까?

△ 2025.1.1.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0,740원	시급 10,03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96,270원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 150만원 월 하한액 70만원	1~3개월 월 상한액 250만원 4~6개월 월 상한액 200만원 잔여기간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60만원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금	매월 75% 지급, 나머지 25%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괄 지급	매월 100% 즉시 지급

△ 2025.2.23. 시행

미숙아 출산 시 출산 전후 휴가 일수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미숙아 출산 전후 100일(다태아 120일)
	*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유·사산 휴가 기간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 시 휴가 기간을 유·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10일까지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 기간, △사용 방법, △분할 횟수, △사용기한이	
	10일, 신청, 1회, 90일 이내	20일, 통보, 3회, 120일 이내

	기간, 분할 횟수가	
육아휴직기간	부모 각각 최대 1년, 2회	부모 각각 최대 1년, 3회 단,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 ①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② 한부모 가정, ③ 장애아동의 부모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범위	임신한 여성 노동자는 1일 2시간의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또는 32주 이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노동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는데 △신청 대상, △단축 기간, △분할 사용 시 최소 신청 기간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최대 2년, 3개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최대 3년, 1개월
난임 치료 휴가	노동자가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휴가 기간, △유급 보장 일수, △국가 지원이	
	3일 이내, 최초 1일, 규정 無	6일 이내, 최초 2일, (우선지원 대상 기업) 2일 지원

△ 2025.6.1. 시행

폭염 및 한파 노동 보호	규정 無	폭염, 한파에 장시간 노동 시 사업주의 건강 장해 예방조치 의무 신설
------------------	------	--

금방이가 말하는 반도체 특별법과 장시간 노동

제목은 '몰아서 일하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장시간 노동'을 곁들인.

- 금속노조 마스코트 '금방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속노조 마스코트 '금방이'입니다. 거리와 광장에서 조합원,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며 얼굴을 알려온 지 벌써 두 달이 훌쩍 지났네요.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난 후 예전보다는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더 예민하게 관심을 두게 되었는데요.

반도체 특별법! 반도체 산업 경쟁력 약화? 왜 노동자 탓?

요즘은 반도체 특별법이 궁금했어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졌다,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세금, 법정 노동시간 적용 제외 등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대충 이런 이유로 준비한 법안이더군요. 그런데요, 대만, 중국의 경쟁 업체에 이미 추월당했거나 이제 곧 당할 지경이라 한다면, 그게 왜 열심히 일만 했던 노동자들의 책임인가요? 아마도 변화의 흐름을 잘 못 읽은 경영진의 무능함 때문이지 않을까요?

노동시간 늘리는 반도체 특별법. 재벌 편만 드는 정치.

반도체 특별법은 연구·개발(R&D) 노동자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최근 빗발치는 여론에 못 이겨 민주당은 결국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법안에서 제외하기로 최종 입장을 정하기는 했지만, 자본과 여당은 여전히 그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왜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몰아서 일하기' 운운하다가 뒤늦게 제외한다는 등 갈지자 행보를 보였던 것일까요? 아니, 잠깐만, 이거 윤석열이 말했던 '주 120시간 노동', '주 69시간 노동' 어찌고 하는 말이랑 별로 다를 게 없네? 윤석열도 일할 때 바짝 몰아서 하고, 그다음에 폭 쉴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 뭐죠?

기본값은 주 40시간. 52시간도 너무 많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법정 근로 시간이 주 40시간입니다. 도입한 지 20년도 더 지났어요. 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 근로를 허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 52시간 상한제'인 거죠. 그런데 요새는 희한하게도 애초부터 주 52시간이 기본값인 듯 얘기하더라고요. 마치 처음부터 주 52시간이 기준시간이라서 시간을 더 늘릴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주

장하는 건 장시간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입했던 제도의 취지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주 52시간 상한제

어쨌든 누군가 이 문제를 갖고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헌법재판소에 따져 물었었나 봅니다. 다행히도 헌법재판소는 작년에 이미 ‘주 52시간 상한제는 합헌’이라고 판결했어요. 현재조차도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사용자와 노동자의 ‘자율적 합의’에만 맡겨서는 장시간 노동 문제를 쉽사리 해결할 수 없다고 봤기에 내린 판단이라고 해요.



‘몰아서 일하기’ 더 이상은 네버!

그런데도 또다시 반도체 산업이 위기입네 하면서 ‘노동시간 유연화’를 앞세워 노동자들만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공부도 몰아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노동자들에게는 왜 자꾸 ‘몰아서 일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일까요? 지금이야 반도체 노동자들에게만 하는 얘기 같지만, 조선업계도, 방산업계도, 그리고 또 다른 산업계도 ‘우리도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해 달라!’고 외쳐대기 시작하면 마치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식인 듯 포장하며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 겁니다.

노동조합과 함께 막아보아요

사실,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책은? 네, 지금 여러분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그 단어, ‘노동조합’입니다. 실제로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 운운하는 반도체 특별법도 노동조합과 여러 시민단체가 함께 막아서면서 정치권에 압박을 가해 일단 멈춘 것이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싸우고, 임금체불하는 사장이 있으면 근로감독,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산업단지 노동자 대상 무료 상담도 하면서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려 건강과 일상을 위협받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조합과 함께하면 혼자서는 이겨내기 힘든 일들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외로운 노동자’였던 저도 금속노조에 가입하면서 함께하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도 함께 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구나 금속노조

경주지부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누구나 금속노조 - 경주지부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

산업단지 곳곳에서 우리는 *이주노동자와 마주치고 때로는 함께 일합니다. 다른 문화와 언어적 장벽으로 서로 쉽게 다가가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에서는 이주노동자 동료들과 더 좋은 회사 생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주노동자 : 다른 국가에서 이주해와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는?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는 차량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현대성우솔라이트의 노동자들이 2022년에 금속노조에 가입하며 설립된 금속노조의 지회입니다. 현재 조합원은 약 350명인데요. 그중 18명이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몽골 등 다양한 국적의 이주노동자입니다.

처음 노동조합을 만들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열하면 백전백패, 단결하면 백전무패라고요. 사업주는 우리를 세대로, 성별로, 국적으로, 하는 업무로, 정규직 여부로 계속 갈라놓고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더 단결할수록 우리 힘이 더 세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업주와 단체협상을 하기 위해 우리 요구를 마련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전에는 미처 몰랐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툴고 시간도 더 걸리지만 우리가 같은 입장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조합원들 간의 신뢰가 깊어졌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연대가 강화되었습니다.

함께하는 *단체협약

그 과정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권리를 보장하고, *정주노동자, *이주노동자 모두의 권리 증진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단체협약에 담았습니다.

- 단체협약 : 노동조합과 회사가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조건과 노사관계에 대해 정한 계약.
- 정주노동자 : 이주노동자와 대비되는 개념. 다른 국가에서 이주해 오지 않은 노동자.



우선 국적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같은 노동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습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종교적 문화적 특성을 존중하기 위해 각 국가의 명절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휴가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노동자들을 위해 휴게 공간도 배려했고요. 업무 교육, 안전 교육 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요한 공지사항을 다국어로 번역해서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현장에서 전해진 노동자들의 목소리 - “함께 만드는 변화, 더 나은 내일”

"우리가 단체협약을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우리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노동조합 덕분에 우리가 회사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노동조합은 우리의 삶과 노동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공간입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문제도 동료들과 함께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주노동자분들에게도 노동조합은 새로운 나라에서의 삶을 지탱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는 더 이상 장벽이 아닙니다"

현대성우솔라이트지회의 조합원들은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이주노동자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어 주요 의사결정 과정과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거라 믿습니다.

아직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 여러분과도 함께 힘을 모아 우리의 권리를 지켜나가겠습니다. 금속노조와 함께합시다!

더 나은 직장 생활을 위한
길잡이 「바지락」
QR코드 스캔하고 나의 권리 찾자!



공단노동자신문 <바지락> 지난 호 보기

알아두면 유익한 실전 노동법과 다양한 정보
지난 <바지락> 내용이 궁금하다면? 찰칵!



민주노총 노동상담 페이지

누구나 쉽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노동 상담받고 싶다면? 찰칵



금속노조 소개

금속노조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면?
SNS에서 금속노조의 사진과 영상을 보고 싶다면? 찰칵!

**나와 우리의 일터를 바꾸고,
삶과 미래를 바꾸는 가장 큰 힘, 노동조합
금속노조와 함께 당신의 삶과 일터를
바꾸어보아요.**



망설이지 말고 연락하세요!

최저임금 위반 · 임금체불 · 부당해고 · 직장갑질 · 산재사고
무료 노동 상담 · 가입 문의 ☎ 1811-9509